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홍혜준*

〈차 례〉

- I. 서론
- II.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위상
- III.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의 가치
- IV.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 1. 시조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 2. 전래동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 V. 결론

I. 서론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 한국어 문화 교육은 한국어 교육론,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개발 등의 분야에 비해 연구가 적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현장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기능 교육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민현식, 1996; 2003; 김정숙, 1997; 박갑수, 1998; 김대행, 2000; 윤여탁, 2000, 2002)가 이

루어지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문화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나 방향 제시,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의미를 다루다가 최근에는 구체적인 문화 교육 방법 이론을 제시하거나 실제 수업 구성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로 첫째,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연구(김정숙, 1987; 심민아, 1997; 조항록, 2000; 성기철, 2001), 둘째, 한국어 문화 교육의 구체적 교수법을 다룬 연구(한상미, 1999; 이해영, 2000), 셋째,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박영순, 2989, 2001; 민현식, 1996, 2003(박영순, 2989, 2001; 민현식, 1996, 2003)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란 개념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인데, 대표적인 논의를 정리하면, 브룩스(Brooks)는 문화를 C(공식적인 문화)와 c(심층적인 문화)로 구분하여, C는 한 사회가 이룩해 놓은 위대한 성취, 예술적 성과 등을 의미하고, c는 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뜻한다고 하였다. 실리(Seelye)는 문화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노스트랜드(Nostrand)는 문화 속에는 가치체계, 사고습관, 예술양식, 신체언어 등이 속한다고 하였고, 해머리(Hammerly)는 문화를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구분(H. H. Stern, 1992: 208-210)하고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심은 목표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유형을 추출해 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문화의 범주는 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¹⁾할 수 있다. 첫째, 문학 예술 작품을 들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학교 교

1) 정현선(2001: 235-238)은 문화의 세 범주 중에서 '대중문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반면, 이 글에서는 '문학 예술 작품'에 초점을 맞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을 논의하고 있다.

육에서는 학생들의 문학 예술 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둘째, 주로 인류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 개념이다. 셋째, 최근에 발전된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에서 문화를 보는 시각으로, 대중문화(popular culture)를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로 소개되는 항목은 주로 전통 문화와 음식, 의복, 주거 생활, 한국의 기후, 면적, 역사적 사건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들은 정보나 지식으로 단지 제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차원의 문화 교육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가능해 진다. 그런데 이때의 문화 교육은 한국학이나 외국 대학에서의 문학교육과 같이 '한국문학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한 교육'을 말하는 것²⁾이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과 관련된 문화의 세 가지 범주 중에서 문학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한편 기능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 지나치게 실용성에만 비중을 두는 외국어 교육의 경우,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언어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도외시하기 쉽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보다 비중 있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고의 방식, 표현의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접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의 차이를 느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김정우, 2001: 174-175) 언어를 이용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문학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려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언어와 문화 습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윤여탁(2003)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 한국문학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II.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위상

한국어교육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학을 언어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김정숙, 1996; 권미정, 1999; 정은혜, 1999; 이정희, 1999), 둘째, 문학을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권순희, 1996; 김정숙, 1997; 박영순, 1989; 조향록, 1998), 셋째, 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문학을 문학으로 가르치고자 한 것(윤영, 1999; 정은화, 2001; 홍서연, 2001; 박청, 2002; 주은정, 2002) 등이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독자적인 가치와 필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을 적극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한용(1999, 2000)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효용을 다루면서 특히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언어적 소통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로 소설을 제시하고, 소설문학이 한국어 교육에 기여하는 점과 구체적인 활용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현대소설의 언어적 특성 규명을 통해 소설이 가장 이상적인 한국어 담론임을 밝히고, 소설의 다양한 활용방법으로 교재 구성, 한국어 어법의 예, 화용의 전범 등을 제시하였다. 윤여탁(1999, 2000)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의 위상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문학이 의사소통능력인 언어 활동 학습에 활용될 수 있고, 한국문화 체험, 고급스런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재 구성 및 정전 문제, 위계화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황인교(1989, 2001)는 문학작품을 통해 읽기 전략을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 논했다. 문학작품이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자료라는 점, 학습자 중심의 교수가 가능하다는 점, 고급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이 외국어 학습에서 비중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문학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가치는 외국어 학습에서의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의미가 명백해진다. 라자르(Gillian Lazar, 2000: 15-19)는 언어 교실에서 문학을 활용하는 의도로 동기유발의 자료, 문화적 배경에의 접근, 언어습득 향상, 학습자의 언어적 자각의 확장, 전인 교육을 들고 있다. 리틀우드(Littlewood)는 학습자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문학을 보는 관점과 문학을 학습하는 이유가 달라진 다³⁾고 하였다. 메케이(McKay, 1984: 193-194)는 문학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로 문학작품을 통해 언어구조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점, 문학작품을 통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이 증진된다는 점, 문학작품은 특정한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성을 갖게 되고, 학습자는 창조력과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콜리와 슬레이터(J. Collie & S. Slater, 2000: 3-6)는 문학작품을 교육하는 이유로 가치있는 실제적 자료, 문화적 풍부함, 언어적 풍부함, 인간적 참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더프와 말리(A. Duff & A. Maely, 1996: 6)는 문학텍스트의 세 가지 유용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문학텍스트가 실제 언어자료라는 점,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인 점, 주제가 사실적이어서 학습자의 개별적인 체험을 표현하게 하는 자료인 점 등이다.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은 언어교육의 자료로서 문학작품을 사용하는 차원에서부터 본격적인 문학교육의 수준까지 다양한 교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문학적 언어의 다층적 성격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함축하여 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반영하므로 목표어 사회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도 가능하게 한다.(황인교, 1998: 213-214)

3) 학습자의 1단계에서는 주로 문학이 의사소통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언어학적 구조를 가진 자료로 인식되고, 2단계에서는 문체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자료로 인식된다. 3단계에서 문학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외국 문화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며, 4단계에서는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자료, 5단계에서는 문학사의 한 부분으로 문학이 인식된다. William T. Littlewood(1984: 178-180) 참조.

Ⅲ.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의 가치

최근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나 소설을 통한 한국문학교육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대문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나 소설 장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고전문학 작품들은 교재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쓰이는 한국어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축적 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문학을 도외시킬 수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도 한국 문화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어를 교육하는 국내, 국외의 기관에서는 시조, 고소설, 전래동화 등을 교재에 수록하거나 교재 밖에서 다른 활동들과 함께 고전문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 작품을 다룬 연구(이성희, 1999; 김종철, 2002; 주은정, 2002)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로 설화와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역사에서 그 정수적 표현을 얻은 것이 고전문학이며, 그러한 표현은 오늘날의 한국어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문학은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교재가 된다. 둘째, 한국인의 언어 생활사에서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틀과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고전문학이며,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잘 알 수 있고 그것의 표현 방식도 알 수 있게 되어 한국어를 고급한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고전문학은 인류사에서 한국인이 성취한 고전이다. 한국어로 이루어진 고전을 배우는 것은 한국 문화가 세계문화의 일원으로서 이룬 최고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이다.(김종철, 2002)

언어가 모범적인 언어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념이 되어 있고, 여기에 문화의 전수라는 요소까지 추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고전문학은 매우 귀중한 학습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김대행, 1995: 369) 문학교육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자신이 경험하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을 접하고, 꿈꾸는 행위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전문학은 현대문학과는 달리 시간적으로 거리를 지나는 문학이고, 따라서 다양성의 폭이 넓기 때문에(정병헌, 2000: 22) 상상력을 기르는 문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과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을 비교해 볼 때 시간적 거리로 인해 상상이 필요한 것이 자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이라면, 외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거리에 다시 문화적 거리가 더해지는 이중의 상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때로는 문화적 정보가 없어서 아예 상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민담 같은 이야기들은 그 시대나 사회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없어도 충분히 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느끼는 낯선 부분이 있다면, 그 낯설⁴⁾이야말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목표가 상상력의 세련에 있다면, 외국어 교육의 문학교육에서의 상상력은 '문학적 상상력'인 동시에 '문화적 상상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국어교육에 있어서 고전 교육에 대한 반성을 해 보면, 우선 교육과정에서의 고전에 대한 관심이 고전문학의 장르나 역사 등의 암기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국어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이 문학적 감수성, 상상력, 심미적 판단의 능력보다는 암기적 지식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얻기가 어렵게 된 것이

4) 크루셰(D. Krusche, 1983: 251, 은지영, 2002: 11에서 재인용)는 낯설음으로부터 유발되는 동기가 외국어수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낯설음을 향해, 그리고 낯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불안감과 희망감은 낯선 문화를 배우고, 또 알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 고전문학 교육은 우리 민족의 구체적인 삶의 양상과 방식 및 풍속, 예속(禮俗)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도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생활의 구체적인 국면과 맞물려 문학이 창조되고 향유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생활이 어떠했으며, 그 생활이 언어를 통해 어떤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김종철, 2002: 339)

현재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고전문학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재에 제시된 고전 작품의 수는 많지 않고, 교재 밖에서 다루는 경우⁵⁾가 많았다. 서울대학교 교재의 경우, 4급에서 전래동화를 학습하고, 6급에서 고시조와 현대 시조, 고소설 등의 고전문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재의 경우, 〈한국어 읽기4〉에서 고시조를 학습하는데, 이 경우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함께 제시하고, 내용파악에 대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 작품〉

기관 항목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단 계	3, 4, 6급	6급	2, 3, 4, 6급	2, 3, 4급
작 품 선 별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독본〉	〈한국어 읽기〉
수 록 작 품			· 청개구리/거울/선비와 도둑/호랑이 꼬리/시집 살이(2급)	· 거울/동물들의 나이 지 람/소가 된 사람/호성이 지극한 호랑이(2급)

- 5) 실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교육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경우, 고전 작품을 교재 외의 작품으로 다루고 있었다. 말하기, 토론 활동시간에 흥부리 영감 흥부전, 온달과 평강공주, 춘향전, 토끼전, 단군신화 등의 작품을 매개로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세련되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자료는 정은화(2001)와 박청(2002)의 논문을 참고하였음

수록 작품	· 풀단지 이야기 (3급) · 거울(3급) · 단군이야기 (4급) · 흥부와 놀부 (4급) · 시조(6급)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태산이 높다 하되/봄/ 개화/난초)	· 시조 (오우가) (6급)	· 흑부리 할아버지 (3급) · 흥계관의 점/우물 안 개구리/새의 교훈/검정 소 누렁소(3급) · 함정에 빠진 호랑이 (3급) · 단군신화(4급) · 양반전(6급)	· 흥부전(3급) · 단군신화(4급) · 시조(4급) (한손에 막대 잡고/방 안에 헛는 촛불/동짓달 기나긴 밤을/태산이 높 다 하되/짚방석 내지 마라)
------------------	--	--------------------------------	--	--

이 글에서는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요소를 추출하여 문학작품과 대비한다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학작품 자체를 외국인에게 학습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해 카터와 룡(Ronald A. Carter & Michael N. Long, 1992: 2-3)이 제시한 문학교육의 세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모형을 구안할 수 있다.

첫째, 문화 모형(The cultural model)으로 문학은 역사적 사고와 정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세대, 다른 지역의 문화 개념과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둘째, 언어 모형(The language model)인데, 학습자에게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언어발달을 더욱 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문학이 특별한 어휘, 구문, 언어조작 기술 등과 연관되어 있고, 언어는 문

학의 매개체이므로 학습자는 문학작품을 읽고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개인 성장 모형(The personal growth model)을 들 수 있는데, 개인 성장 모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교실을 벗어난 일상생활에서도 문학을 즐기고 평생 동안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문학작품을 읽도록 교사가 유도하면 학습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및 주위의 현상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위의 세 가지 모형을 이용⁶⁾하여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문학연구논문에서 보면 지나치게 문학감상에만 집중한다거나 언어교육에서의 문화요소를 추출하여 문학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에서는 문화교육 못지 않게 언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래의 세 가지 모형의 수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 문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모형을 염두에 두고 한국어 문화 교육을 할 때 어떤 고전 작품을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문화 교육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생활풍속이나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는 작품이 유용할 것인데, 예를 들면 농가월령가나 시집살이요를 통해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풍물이나 지리 등을 학습할 경우, 한국의 자연과 환경이 잘 드러난 기행가사, 지역 민요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 교육이 가능하다. 둘째, 언어 교육 측면에서는 한국어의 독특한 언어유희, 말장난, 리듬, 통사구조 등을 학습할 수 있는데, 초급단계에서는 동요를 배운다거나, 중급단계에서는 시조나 가사의 율격, 고급단계에서는 판소리, 탈춤 등을 통해 언어학습

6) 황인교(2001: 428-431)는 라자르(Lazar)의 세 모델(언어기반 접근(문체론), 내용으로서의 문학, 개인적 풍부함으로서의 문학)과 카터와 롱(Carter & Long)의 모델을 정리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능하다. 셋째, 개인 성장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작품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고난과 갈등을 웃음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홍부전의 해학을 학습한다거나 시조에서 몰아일체, 자연 친화 사상을 학습함으로써 독특한 한국적 가치관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한국인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홍부전의 우애, 심청전의 효 사상, 시조의 충, 효, 예를 학습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불선 사상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된다.

IV.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1. 시조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조 교육을 들 수 있다. 시조는 한국의 전통 시가 가운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상, 창작되며 문학적 생명을 이어온 대표적인 민족문학 장르이다. 시조는 700여 년 이어오는 동안 3·4조와 4음보 율격을 형성하면서 3장 6구의 독특한 율격 속에 우리 민족의 성정에 맞는 흥취와 멋을 담고 있으며, 최근에까지 수많은 시인들이 시조를 아끼고 창작해 왔다.

언어의 실용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현재 사용되는 언어의 용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만다면 그것은 문화의 단순화 내지는 폐쇄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언어의 실용성을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거나 또 이왕에 지녔던 잠재력에까지 눈을 돌릴 때 온전한 실용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것(김대행, 1995: 379)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의 시조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조는 체험의 소산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는

시조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시조에는 작가의 깊은 사상과 체험, 가치관이 용해되어 있으므로 시조교육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는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심화할 수 있다. 셋째, 시조는 한국적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서를 자유자재로 표현한 장르이므로 외국인 학습자가 우리말의 섬세하고 미묘한 느낌까지 배우고, 문학적인 언어 감수성을 높이며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때 시조작품을 배울 경우 어휘학습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교재에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함께 제시⁷⁾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시조는 문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음악적 요소를 지닌 장르이므로 시조창과 리듬감 있는 시조 낭송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말하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시조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정형률에서 오는 음악성인데, 이러한 시의 음악성은 반복되는 언어적 요소들이 일으키는 운율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의 3행시로 구성되어 초장에서 시흥을 일으키고 중장에서 이를 키워낸 뒤, 종장에서 이를 다시 매듭짓는 데서 오는 단아한 완결미와 조화미를 보임으로써 나름대로의 리듬을 자아내고, 이러한 리듬은 학습자에게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하다. 시조의 음악성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낭송방식을 구안⁸⁾할 수 있는데, 시조의 낭송은 외국인 학습자가 시의 운율감을 발견하고 시 전체의 분위기 파악과 흥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시조 창작 활동에서 학습자는 시조를 짓기 위해 두 마디 연접대응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익히는 것은 한국어의 재미를 느끼면서 동시에 수식어+피수식어, 혹은 안은 문장, 안긴 문장, 주술 호응 등을 학습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7) 연세대학교 교재의 경우, 시조학습을 할 때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함께 제시하고, 내용 파악에 대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8) 신현재(1999: 974-975)는 낭송지도의 예로 시조를 읊을 때 흔히 입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손까지 움직여서 읊절수마다, 또는 음보가 끝날 때마다 손뼉을 치거나 악기를 치며 낭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조에 담긴 운율감을 손놀림과 음성으로 구체화시켜 더욱 분명하게 체득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A. ①마이클은 / ②우리 학교 / ③영회를 / ④사랑한다
 B. ①마이클은 / ④사랑한다 / ②우리 학교 / ③영회를
 C. ②우리 학교 / ③영회를 / ④사랑하는 / ①마이클

흔히들 A가 산문처럼 느껴지고 B, C가 운문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B, C가 각각 도치문과 명사형 종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율격은 두 마디 연첩 대응을 기본으로 성립한다는 견해⁹⁾에 비추어 볼 때, A는 네 마디가 비로소 한 단위이지만, B, C는 의미상 연관이 밀접한 부분들로 두 마디가 분리되면서 연첩 대응이 되고 있어서 율격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볼 수¹⁰⁾ 있다. 의미상의 연관이 밀접한 '수식어+피수식어', '주어+서술어' 등으로 마디를 구성하여 율격을 만들어 내는 연습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 어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울러 학습자 자신이 시인이자도 된 듯 즐겁게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한국 시의 율격에 대한 관점은 시에서 보이는 언어 조직의 방법이 한국어의 문장 구조나 단어의 길이 등에 걸맞게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점¹¹⁾에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시조의 율격을 지도할 때 시조의 형식이 초, 중,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3장 6구 형식이라거나 3·4·3·4의 구조라는 등의 설명을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3장 6구의

9) 의미상의 두 마디 연첩 대응에 대해서는 김대행의 『시조유행론』, 『시가시학연구』, 『한국 시가구조연구』등을 참고할 수 있다.

10) 영어권 화자나 중국어권 화자는 자신의 모국어에 비춰 볼 때 B가 자연스러운 어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어권 화자의 경우에는 이 예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1) 김정우(2001: 180-183)는 한국 시의 율격을 다양한 현대시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산에는/꽃 피네//꽃이/피네//갈 봄/여름 없이//꽃이/피네//
 (김소월, 〈산유화〉)

강나루/건너서//밀밭/길을//구름에/달 가듯이//가는/나그네//
 (박목월, 〈나그네〉)

해야/숫아라//해야/숫아라//말장계/씻은 얼굴//고운 해야/숫아라//
 (박두진, 〈해〉)

형식이나 음보, 대립, 병렬, 반복, 압축 등과 같은 시적 의장은 시조를 시조이게 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박철휘, 1997: 132; 김선배, 1999: 1019)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어로서의 시조 교육은 창작지도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조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단어나 어절의 일부만 바꾸어 새로운 분위기를 낳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시조를 창작하게 하는 것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뵈만 높다 하더라
-양사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6급 교재에 실린 양사언의 시조인데, 학습자는 시조의 단어나 어절 일부를 대치시켜 보는 활동, 시의 제재나 소재를 바꿔서 고쳐 보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조를 창작할 수 있다.

〈학생시조1〉 겨울이 길다 하되 따뜻한 봄 아래로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봄이 안 올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기다리고 시간만 안 온다 하더라
-민투이

〈학생시조2〉 일자리가 없다 하되 실업자 아래로다
찾고 또 찾으면 못 찾을 리 없건마는
사람들이 제 아니 찾고 희망만 없다 하더라
-순스케

〈학생시조3〉 무궁화호가 빠르다 하되 새마을호 아래로다
달리고 또 달리면 도착 못할 리 없건마는
기차가 제 아니 달리고 속도만 없다 하더라
-켄지

〈학생시조4〉 한국에 미인이 많되 인공 미인이로다

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안 익숙할 리 없건마는

남자 친구 제 아니 사랑하고 나만 수술 받으라고 하더라

-유끼¹²⁾

위와 같은 지도방법은 외국인 학습자가 시조의 정형율도 익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조를 짓는 재미와 맛을 깨달을 수 있어 문학교육의 일차적 목적인 문학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자칫 교사 중심으로 흐르기 쉬운 고전문학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가능해진다. 시조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문화 모형

〈활동1〉 시조를 이야기로 바꿔 써 보기 : 시조의 화자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 후 하나의 이야기로 바꿔 써 보게 한다. 이때 학습자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상상력을 살려 글을 쓸 수 있다.

〈활동2〉 N.I.E(Newspaper In Education)에 의한 시조 짓기 : N.I.E란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교육적 활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학습자는 신문에서 관심 있는 사진,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그 중 하나를 골라 적절한 제목을 붙이고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정리하여 짧은 글을 쓰게 한다. 그리고 시조의 형식에 맞게 시조를 창작한다.

2) 언어 모형

〈활동3〉 자유 작문(Free Writing)에 의한 시조 짓기 : 1분간 계속 쓰기 훈련, 3분간 계속 쓰기 훈련, 5분 쓰기 훈련, 자유 작문을 토대로 시조 짓기

12) 위의 시조작품들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6급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에 실린 작품인데, 6급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창작한 시조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뽑은 것이다.

〈활동4〉 현대시를 시조로 바꾸어 쓰기 : 일정한 제목을 주어 자유시를 짓게 한 다음 시조의 형식에 맞추어 정형화하는 방법이다.

〈활동5〉 주제문을 시조로 짓기 : 일정한 제목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제공한 다음, 학습자의 생각을 개요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조를 짓게 하는 방법이다.

〈활동6〉 시조의 빈 장을 자유롭게 채워 넣어 짓기 : 초장, 중장, 종장 중 한 장을 빈 칸으로 처리하여 학습자가 완성하게 한다. 조별로 완성한 시조를 감상하고 다듬게 한다.

〈활동7〉 생각그물(Mind Map)에 의한 시조 짓기 : 마인드맵은 복사 사고(radian thinking)을 표현한 것으로, 실생활의 모든 면에 작용될 수 있고, 학습기술의 향상과 명료한 사고는 인간의 활동을 강화시켜 준다.

〈활동8〉 시조를 만화로 표현하기 : 감상한 시조의 내용을 3칸, 4칸, 6칸의 만화로 표현할 수 있다. 시조의 형식을 살려 초장, 중장, 종장의 3칸으로 만화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때 대화를 삽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말풍선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꾸밀 수도 있다.

〈활동9〉 시조 고쳐 쓰기 : 시조를 그룹별로 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자유롭게 고쳐 쓰게 한다. 화자가 남성인 시조의 경우, 여성으로 고쳐 써 보거나, 시대를 현대로 바꾸어 고쳐 쓸 수도 있다.

3) 개인 성장 모형

〈활동10〉 시조로 일기 쓰기 : 학습자들은 초급단계에서 일기 쓰기 형식을 학습하게 되는데, 수첩에 메모한 내용이나 일기 내용 중 한 가지 글감을 정해 시조의 형식에 맞추어 시조를 짓게 한다.

〈활동11〉 시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 시조를 학습자에게 들려준 후 학습자의 느낌이나 감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런데 이 경우 그림 그리기에 자신이 없는 학습자가 있을 경우, 시조를 듣고 난 감상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

〈활동12〉 시조 속의 주인공 되어 보기 : 소그룹별로 시조 속의 배경

이 되는 시대적 상황이나 작가, 화자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황진이의 시조를 감상한 후 학습자 중 황진이가 되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 전래동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전래동화는 인류의 문화발전과 더불어 민족이나 집단의 생활습관, 사상, 가치관, 정서, 신앙 등을 내포하면서 음성언어를 통해 구전되거나, 문자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민담이 기본이 되어 주로 교육적 목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감동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이야기이다. 전래동화는 이야기의 전개과정이 세계각국의 것과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간의 원시적인 심리상태가 국경을 초월해서 동일한 사상과 의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어교육에서의 전래동화 교육의 교육적 성격(최운식·김기창, 1998: 52-53)을 참고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전래동화 교육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래동화는 묘사가 별로 없고 설명과 서술 위주로 되어 있어 스토리가 간결하며 단순해서 초급의 학습자에게도 학습의 부담이 적다. 둘째, 전래동화는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는 전래동화의 초시간적, 초공간적인 비현실 세계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셋째, 전래동화는 말로 표현된 것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는 언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말하기,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전래동화는 서두와 결말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학습자가 이야기의 내용을 알기 쉽고 기억하기에 편리하다. 다섯째, 전래동화 속에는 과거 조상들이 겪어 온 삶의 다양한 체험, 사상, 풍속, 습관, 감정, 지혜, 가치관 등이 융해되어 있어,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한국적 정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 여섯째, 전래동화는 구성에 있어 반복과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변화있는 반복은 외국인 학습자가 이야기에 점점 더 기대와 흥미를 느끼게 하고 어구의 반복을 통해 이야기에 리듬감을 더해 준다.

일곱째, 전래동화는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내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권선징악적,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아 외국인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여덟째, 전래동화는 구연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한 발음과 적절한 어휘선택 등 언어적 지식이 요구된다. 아홉째, 전래동화를 대화체로 구성하여 역할극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학습자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래동화를 다양한 시각교재, 그림, 사진, 모형, 실물자료 등과 비디오 테이프를 함께 제시하여 언어학적 수준, 문화적 타당성,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와 아동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한다면 살아있는 의사소통 자료와 이해 가능한 언어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다. 전래동화교육은 문학교육의 한 분야이면서 이야기 교재이다. 또한 인간의 보편적 진실을 중시하는 산문문학인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고, 도덕적인 교훈성을 갖는 이야기이므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 전래동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모형

〈활동1〉 인터뷰하기 :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그룹별로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홍부와 놀부〉의 경우, 같은 형제이면서 양반과 천민으로 그 사회적 신분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당시 조선 후기 서민사회의 모습, 화폐 경제의 발달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활동2〉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하기 : 전래동화인 〈홍부와 놀부〉의 경우, 판소리로 만든 〈홍보가〉를 들려주고, 장르의 특징에 따른 감상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

〈활동3〉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기 : 교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중에 학습자가 음향효과를 내도록 한다. 〈홍부와 놀부〉의 경우, 제비의 울음소리, 도깨비 방망이, 톱질하기, 박 타는 소리 등의 효과음을 학습자가

말아 연출하도록 한다.

2) 언어 모형

〈활동4〉 스토리텔링하기 : 교사가 학습자 앞에서 감정을 살려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발화된 문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언어 기능과 구조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다.

〈활동5〉 학습자가 작품을 낭독하기 : 낭독은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을 읽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 주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발음 교정과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활동6〉 빈칸 메우기 : 등장인물들의 대화 중에 생략된 표현을 찾아 빈칸 메우기 활동을 하게 한다. 학생들의 선택한 단어들을 읽게 하고,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

〈활동7〉 작품을 학습한 후 다른 장르로 써 보기 : 전래동화를 학습한 후 희곡으로 바꿀 경우, 각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 지문 등을 그룹별로 쓰게 한다. 한편 희곡의 형태로 학습한 경우, 학습자가 이해한 작품의 내용을 서술문 형태로 길게 써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구적인 이야기와 사실을 전하는 신문 기사를 읽을 때의 태도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활동8〉 문장을 문맥에 맞게 재배열하기 : 작품을 다 읽고 나서 시간적 순서나 사건의 인과 관계에 따라 문맥에 맞게 재배열하는 연습을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독해 과정에서 문맥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활동9〉 그림 보고 이야기 구성하기 : 작품과 관련된 그림자료를 준비하여 학습자들이 그림을 순서대로 맞추고 장면과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말해 보게 한다.

3) 개인 성장 모형

〈활동10〉 개인적 반응 이끌어 내기 : 학습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이야기 장면을 그려보게 하고, 감정 이입을 통해 이야기 속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활동11〉 작품의 결말 재구성하기 : 학습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작가가 되어 이 작품을 다시 쓴다면 내용 전개와 결말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토론한다.

〈활동12〉 소그룹별로 토론하기 : 작품을 읽고 나서 몇 가지 주제를 정하여 소그룹별로 토론하게 한다. 예를 들어 〈홍부와 놀부〉를 학습한 후 그룹별로 홍부와 놀부의 가치관, 성격,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이야기한 다거나 학습자는 놀부형에 가까운지, 홍부형에 가까운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사회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 본다.

V. 결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교육 못지않게 가치의식, 행위관습, 대화양식 등을 파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문화 교육을 통해 가능한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요소를 추출하여 문학작품과 대비한다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학작품 자체를 외국인에게 학습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카터와 롱(Carter & Long)이 제시한 문학교육의 세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모형을 구안해 보았다.

문화모형의 수업은 작품에 나타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기초수준에서부터, 작품에 담긴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전통을 찾는 일까지 가능하다. 시조의 경우, 학습자가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후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살려 다른 장르의 이야기고 바꿔 써 본다

거나 신문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양식을 살펴 시조를 짓는 방안을 구안할 수 있었다. 전래동화인 〈홍부와 놀부〉의 경우, 인터뷰하기 활동을 통해 조선 후기 서민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서민계층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고, 특히 두 주인공인 홍부와 놀부는 당시 서민사회의 일정한 신분적 특징과 유형을 반영하는 전형적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형제이면서도 양반과 천민으로 사회적 신분이 다른 주인공을 통해 서민계층의 삶을 엿볼 수 있고, 화폐 경제의 발달, 천부의 대두, 물질적 가치관의 성행 등 당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리 〈홍보가〉를 들려줌으로써 다른 장르를 통해 한국인의 감정과 정서를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언어모형의 수업은 간단한 어휘와 구문을 학습하는 수준에서부터 고전 작품의 특정한 문체에 의해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 사상을 파악하는 일까지 가능하다. 시조의 경우, 현대시를 시조로 바꾸어 써 본다거나 시조의 빈 장을 자유롭게 채워 넣어 짓기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어휘학습과 문장구조를 배우고 시조 장르의 독특한 언어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었다. 특히 시조학습에 있어 고어의 낱말풀이, 작가 소개, 작품 해설, 어려운 낱말해석 등의 교사중심의 지식교육을 지양하고 학습자 중심의 시조학습이 되도록 시 낭송하기, 시조의 단어나 어절 바꿔 쓰기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 〈홍부와 놀부〉의 경우, 대화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간단한 단어와 속어, 관용어 표현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어 어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작품에 해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언어학습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개인 성장 모형의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텍스트의 주제와 화제를 개인적 경험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시조의 경우, 시조로 일기 쓰기, 시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을 통해 학습자의 느낌이나 감상을 표현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조 속의 주인공 되어 보거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 자신이 작가가 되어 자신의 느낌을 말하거나 학습자가 주위의 현상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홍부와 놀부〉의 경우, 개인의 반응 이끌

어 내기, 소그룹별로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각각 흥부와 놀부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현대사회를 사는 학습자 자신의 내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은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글이다. 이 경우의 문학작품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자료인 동시에 문화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적하고 특히 시조와 전래동화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양식, 문학교육, 대중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문화의 개념을 모두 고려한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가적으로 공인된 한국어교육과정이 세워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 글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좀 더 다양한 문학 장르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본 논문은 2004. 10. 20. 투고되었으며, 2004.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11.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공일주(199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편찬에 있어서 고려할 문화적 내용", 『한글 새소식』 283호. 한글학회.
- 구인환, 우한용 외(1998), 『문학교육론』. 삼지원.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1991), 『시가시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1998),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2000),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2003),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제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선배(1999), "시조 창작 교육의 실태와 방법 탐색", 원용문 편, 『한국 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 김승환(2002),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문학교육 방법론』. 제3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교육", 『한글』10. 한글학회.
- 김정우(2001), "시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선청어문』 29. 서울대 국어교육과.
- 김종철. (2002), "한국 고전문학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김중신(1997),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구성 연구",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교육학회 발표자료집.
-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청어문』 26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 박영순(1989), "제2언어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회지』 6.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헌재(1994), "초등학교 시조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선청어문』 제2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심민아(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 방안",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우한용(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제3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0), “한국어교육의 과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제3집, 서울대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윤여탁. (2000),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 윤여탁(2002), “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 박영순 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윤여탁(2002), “한국어교육에서 현대문학 정전연구”. 『세계 속의 조선어(한국어) 언어 문학 교 양과 교재 편찬 연구』. 중국 중앙민족대학 국제학술회의자료집.
-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은지영(2002), “외국어수업에서 문학텍스트 활용방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 회.
- 이상익 외(2000), 『고전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 정병현(2000), “고전문학교육의 본질과 시각”. 이상익 외. 『고전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 정병현(2002), “입문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가 을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정현선(2001), “‘문화교육’이라는 문제 설정 II”. 『국어교육연구』 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조창환(1996), “한국어교육과 연계된 한국문화 소개방안”.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 회.
- 조항덕(2001), “외국어 수업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Foreign Language Education 8(2).
- 조항록(2002),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박영순 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홍혜준(2002), “문학을 이용한 한국어 교수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홍혜준(2003), Cultural Syllabus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AFLE International Conference.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론”. 『이화어문논집』 16. 이화어문학회.
- 황인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의 가능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 Atkin, Graham, Walsh, Chris and Watkins, Susan(ed.)(1995), *Studying Literature : A practical introduction*. Harvester Wheatsheaf.
- Benton, Michael. & G. Fox(1985), *Teaching Literature*. Oxford Univ.Press.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Longman.
- Brown, H. Douglas(200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Longman.
- Brumfit, C. & R. Carter(1986), *Litera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 Press.
- Brumfit, Christopher(ed.)(1991), *Assessment in Literature Teaching*. Modern English Publication and The British Council.
- Byram, Michael & M. Fleming(ed.)(1998),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 Press.
- Carter, R. & M. Long(1991), *Teaching Literature*. Longman.
- Collie, Jonne and S. Slater(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 Press.
- Jin, Lixan & , M. Cortazzi. (1998), *The culture the learner brings : a bridge or a barrier?*.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 Press.,
- Krasnick, Harry(1984).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ulturalCompetence*. On Tesol. Washington D.C. : TESOL, Lazar, Gillan. (1993),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Univ.Press,
- Maley, Alan & A. Duff(1979), *Drama Techniques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Univ. Press.
- Maley, Alan & A. Duff(2001), *Literature : Resource Books for Teachers*. 10th. Oxford Univ. Press.
- McKay, Sandra(1982), *Literature in the ESL clsroom*. *TESOL Quarterly* 16(4).
- Povey, John F(1972), *Literature in TESL program :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ds. Allen & Campbell., N.Y : McGraw Hill.
- Stern H.H(1992), *Issues and Option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Press.
- Tomalin, B. & S. Stempleski(1994), *Cultural Awareness*. Oxford Univ. Press.

〈초록〉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홍혜준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는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문학 작품을 통해 가능해 진다.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은 언어교육의 자료로서 문학작품을 사용하는 차원에서부터 본격적인 문학교육을 사 수준까지 다양한 교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문학적 언어의 다층적 성격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함축하여 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반영하므로 목표어 사회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도 가능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문학교육의 세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모형을 구안해 보았다. 기본문화모형의 수업은 작품에 나타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기초수준에서부터, 작품에 담긴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전통을 찾는 일까지 가능하다. 언어모형의 수업은 간단한 어휘와 구문을 학습하는 수준에서부터 고전작품의 특정한 문체에 의해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 사상을 파악하는 일까지 가능하다. 문화적 공감 모형의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텍스트의 주제와 화제를 개인적 경험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은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글로, 문학작품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자료인 동시에 문화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적하고 특히 시조와 전래동화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어】 문화 교육, 기본 문화 모형, 언어 모형, 문화적 공감 모형

〈Abstract〉

Study of Culture Education for Teaching Korean
through Classical Literature

Hong, Hye-joon

For teaching Korean literary works makes culture education more effective than fragment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re are various levels to teaching literature to foreign students from using literary works as a source of language education to teaching literature specially. Multi-level meanings,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language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society where target language is used by implicating various cultural values and reflecting a society profoundly.

In this article, culture education model is designed by three literary education models. Basic culture model is taught from the basic level to understand a society which is described in the literary work to advanced level to understand historical lineage and cultural heritage. Language model is taught from studying basic words and phrases to understanding historical background, views of world and philosophy through specific style of writing. Cultural involvement model is taught by relating personal experiences and the subjects of the tests.

This article shows the necessity of teaching Korean through classic literary works. Literary works are not only materials for language education to communicate but also materials for culture education to develop cultural understanding. This article indicate the necessity and values to teach Korean culture through classic literary works and especially, presents SiJo and fairy tales as specific sample teaching-studying methods.

[key words] culture education, basic culture model, language model, cultural involvement model